

“촛불민심과 함께하는 정권교체…압승 자신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인터뷰

“

호남 반문정서, 잘하라는 질책으로 생각
연정·당통합은 지금 논의할 단계 아니다
박승춘 보훈처장 집권 즉시 책임 물을 것
광주 미래자동차산업 중심축으로 육성
전남 농생명·수산양식산업 선도지역으로

”



대담=임동욱 서울취재본부 부본부장

-이번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번 대선은 정권교체를 바라는 촛불민심과 정권연장을 꾀하는 부패기득권 세력의 대결이다. 저는 촛불민심을 대표하는 후보고 안철수 후보는 정권을 연장하려는 기득권 세력의 지지를 받는 후보다. 정권교체나 정권연장이나 대결 구도가 점점 분명해지면서 국민 선택은 압도적 정권교체로 향하고 있다.

-친문(친문재인) 패권주의 논란이 있고 반문(반문재인)정서 때문에 확장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는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상당 부분 실체가 없는 왜곡된 프레임이다. 기득권 정치세력들은 문재인이 만들어갈 변화를 두려워한다. 그래서 오로지 ‘반문재인’ 슬로건 하나로 선거를 치르고 있다. 다만, 호남에서 적지 않은 분들이 반문정서를 이야기하는 것은 참으로 가슴 아프다. 더 잘하라는 기대와 질책이 함께 담긴 것이라 생각한다.

-적폐세력 일부가 지지의사를 보인다고 안철수 후보를 정권연장세력이라 하는 것은 과도한 주장 아닌가.

▲전짜 정권교체는 촛불민심과 함께하느냐 여부가 기준이다. 저는 시종일관 촛불민심과 함께 해왔다. 안 후보는 촛불집회 불참을 내세울 뿐 아니라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을 바꾼다든지 명백하게 보수층 지지를 겨냥한 행보를 하고 있다.

-취임 직후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할 국정 과제는.

▲일자리 문제만큼은 반드시 해결하는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

-최근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방한, 한미 FTA 재협의를 이야기했다. 어떻게 하겠다는가.

▲참여정부 때 한미FTA는 양국 이익의 균형 속에서 한국 이익을 최대한 지켜낸 성공적 협상이었다. 이후 이명박정부에서 우리가 조금더 양보한 FTA 재협상을 했다. 그럼에도, 그 한미 FTA는 양국 모두에게 무역상 이익을 줬다. FTA에서 일방 당사국이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은 권리다. 재협상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익의 균형을 지켜내는 것이다.

-경제회복 방안과 경제회복을 상징하는 목표 수치를 제시한다면.

▲경제성장률이 2%대로 떨어져 있다. 임기 초반 3% 정도를 유지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경제개혁이 이뤄지면 후반부 4% 정도 되리라 목표를 세우고 있다.

-연정에 대한 입장은.

▲선거에서 우리가 집권해야겠다는 마당인데, 왜 자꾸 연정 질문을 하는지 모르겠다. 정권교체가 이뤄지면 또 압도적 정권교체가 된다면 한국 정치판이 달라질 것이다. 그 속에서 국회 내 다수를 형성하는 노력이 행해져야 한다. 정책연대·당통합·연정 등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그것은 선거 후 정치상황에 따라서 노력할 문제고, 지금은 연정을 논의할 때가 아니다.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입장은.



▲5년마다 정권교체와 함께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인수위가 없기 때문에 효율적 정부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조직개편을 할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 등 국가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직을 중심으로 개편할 것이다.

-광주에 미래자동차산업을 키우겠다고 공약했는데 친환경자동차·자율자동차 등 미래자동차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는 다른 지역에도 많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광주는 자동차산업과 전자산업 기반이 있고, 최근에는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에너지산업 육성을 육성하고 있다. 모두 미래자동차산업 육성에 필수적인 부품산업기술과 생산기반이다. 완성차업체와 부품업체의 상호보완적 기반 위에 정부의 기술개발 지원이 더해지면 부품업체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다.

자동차산업은 어느 특정지역에서 폐쇄적으로 장벽을 쌓으며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기반산업을 활용, 개방형 경쟁체제를 강화시키는 특징이 있다. 광주는 이미 구축돼 있는 기반을 활용해 우리나라 미래자동차의 핵심 부품산업을 육성하는 중심축이 될 것이다.

-완성차를 말하는 것인가. 부품산업을 말하는 것인가.

▲부품, 완성차 모두 포함되는 것이다. 전기차·수소차 등 차세대자동차 부분은 광주가 가장 앞서가고 있다.

-울산 등 다른 자치단체도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의지가 강하다. 조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

▲다음 정부의 과제일 텐데... 그것을 지금 단계에서 하기는 이르다. 승용차와 상용차도 있고...

-전남은 무안공항의 서남권 거점공항 육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무안국제공항은 중국과 동남아 등 신흥시장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 서남권을 대표하는 관문공항으로서 유리한 입지적 여건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무안공항은 중국·일본·동남아 항공수요 등 향후 환경해권 물류와 교역 증가, 2020년 흑산도공항 개항과 광주·무안공항 통합 등에 선제로 대응하는 국토 서남권 허브공항으로서의 자리매김할 수 있다. 인천과 제주 등 국제공항의 기상이변 및 항공사고 시 대체공항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서 타공항과 차별화도 가능하다.

-전북에서 건설 요구하는 새만금공항 역할

이 무안공항과 중복된다는 지적이 있다.

▲무안공항은 무안공항대로 지역거점공항으로 육성·발전돼야 하고 새만금공항은 일대를 환황해경제권 중심지역으로 발전해나가기에 필요한 용도가 있다. 그것 때문에 무안공항의 입지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무안공항의 입지는 광주공항과의 통합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이뤄내느냐에 달렸다. 그리고 광주공항 문제는 다른 지역의 공공항 이전과 형평성에 맞춰서 해결해 내느냐에 달렸다.

-전남에서 요구하는 우주항공산업 육성도 다른 지역의 발전 전략과 충돌한다. 해결책은.

▲전남의 우주항공산업 육성 정책은 지역 여건·특성을 고려해 마련해야 한다. 경남 사천 등 항공우주산업이 전략산업으로 특화된 각 지역과 협업 및 역할 분담이 고려돼야 한다. 지역간 연계발전전략을 추진하면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5·18 헬기사격과 발표명령자 진상 규명이 과제가 되고 있다. 또 전두환이 5·18을 왜곡하고 있다. 아울러 헌법전문 반영을 공약했는데 로드맵은.

▲제3기 민주정부가 출범하면 5·18민주화운동의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기 위한 법적조치를 강구할 것이다. 아직까지 미완의 과제인 헬기 기총소사 문제와 도청 앞 집단발포 책임자 문제 등을 엄격하게 규명할 것이다.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보고서’를 발간하겠다.

개헌 과정에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기,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과 인권증진에 기여한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헌법적 가치로 승화하도록 하겠다.

-인사 소외도 대표적 적폐인데 대책은 있나.

▲‘인사추천 실명제’로 추천부터 결정까지 전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겠다. 호남 출신이라는 이유로 승진에서 배제당하고 차별받은 인사는 더 이상 없도록 특별히 챙기겠다.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고위공직자 인사에도 지역차별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쌀값 폭락으로 농민의 한숨이 깊다. 농도인 전남의 미래를 위한 구상이 있다면. 또 전남의 수산과 양식 어민을 위한 비전은.

▲대통령이 쌀값을 직접 챙기겠다. 신곡 공급 과잉 문제부터 해결할 것이다. 생산조정제를 시행, 눈에 사료곡물 등을 재배하는 농가에 직불금을 주겠다. 또한, 공공급식 등 확대를 통해 쌀수급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

전남을 농생명산업과 수산양식산업의 선도 지역으로 육성할 것이다. 전남의 풍부한 일사량과 친환경농산물 생산기술을 기반으로 서남부권 간척지 일대에 고품질 시설원에 스마트팜 생산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전남에 미래형 농수산 빅데이터센터를 건립하고 농업용 드론과 로봇실증단지, 첨단 융복합 농업벤처기업단지를 조성할 것이다. 여수와 순천을 생태해양관광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

-박승춘 보훈처장에 대한 호남의 분노가 크다. 집권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집권 이후 즉각 책임을 물을 것이다.

광주일보 65 since 1952

대한민국 농수산물식품의 행복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국민 모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건강하고 안전한 농수산물식품!

이제 aT가 농업인의 터전에서 농업인과 함께 그 희망을 만들어갑니다.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가 행복한 창조농업, aT가 새롭게 시작합니다.

정부는 3.0 [농업인] 30년차 농업인

aT 한국농수산물식품유통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27 / 대표전화 061-931-1114

대한민국 농식품산업의 힘

aT 한국농수산물식품유통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27 / 대표전화 061-931-1114